



영산강변 유채꽃, 마음까지 노랗게~ 9일 나주시 영산동 영산강변에서 시민들이 활짝 핀 유채꽃밭 사이를 걸으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남 교량 1403개소 보도 안전 집중 점검

전남도가 14일부터 8일간 도내 교량 1403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 성남시 정자동 보행로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도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점검 대상은 전남도에서 자체 관리하는 지방도와 위임국도의 교량 609개소, 22개 시·군에서 관리하는 교량 794개소다. 기존 교량의 확장 구간과 캔틸레버 형식으로 확장 설치한 보도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캔틸레버 형식이란 한쪽 면은 교량 측면에 고정되어 있으나 반대쪽 면은 공중에 떠 있는 형태의 보도교다.

기존 교량 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부 재료 분리 여부, 콘크리트 균열 상태, 누수, 백태 등을 주로 점검한다. 또 캔틸레버 보도교는 용접 부위 및 볼트 체결 상태, 바닥판 이상 여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안전조치와 함께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긴급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초보 아빠 육아 훈련 광주시 100인 모집

23일까지... 정보 공유·체험 활동

광주시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와 함께 하는 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일부터 23일까지 '제5기 광주 100인의 아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00인의 아빠단'은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지회가 함께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에게 다양한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활동 등을 통해 육아에 대한 고민과 비법을 공유하는 모임이다. 2019년 첫 활동을 시작해 올해 5기를 맞았다.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며 올해 3~7세(2017~2021년생) 자녀가 있는 초보 아빠로, 선착순 100명을 선정한다. 참가신청은 네이버 카페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또는 '맘맘맘 광주전남'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25일 발표한다.

올해는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 멘토링'부터 아이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온라인 주간 육아미션(놀이·교육·건강·일상·관계 5개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영희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육아의 기쁨을 깨닫고, 아빠가 참여하는 육아 실천으로 성평등 양육 가치관 확산과 온가족이 성장하는 소중한 추억들을 경험해보길 바란다"며 "육아를 즐겁게 해보고 싶은 아빠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외국인 3억 7000불 직접 투자 '역대 최대'

미·일·싱가포르, 전기전자·식품·부동산... 올 1분기 비수도권 1위
엔코테크놀로지코리아, 첨단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거점 선택

광주시가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하며 비수도권 1위에 이름을 올렸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도착 금액 기준)

은 역대 가장 많은 3억 7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이다.

신규 금액도 도착 금액과 동일했으며 신고 금액 기준으로는 비수도권 2위였다. 도착 금액은 지난해 전체(4200만달러)의 9배, 신고 금액 기준으

는 지난해(6000만달러)의 6배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1건, 식품 1건, 부동산 1건이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1건씩이다.

특히 직접투자 증가는 엔코테크놀로지코리아(엔코코리아)가 한국을 첨단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분야 글로벌 거점으로 선택해 대규모 증액 투자에 나선 영향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엔코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이 최첨단 반도체 제조와 연구 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되는데 좋

은 기회가 됐다"며 "글로벌 반도체 허브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미래차 산단이 14년 만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엔코코리아의 대규모 증액 투자가 이뤄졌다"며 "산업별 글로벌 앵커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규제 개선과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 광주 기후 재난 '디지털 트윈'으로 예측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대통령 직속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필요"

열섬·미세먼지·침수 등 해결... 스마트 도시 조성 플랫폼 용역 착수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6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전남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박람회 유치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이 환태평양 시대 중심지로 도약하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남부권'이 발전하는 계기를 강조하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내 부산

엑스포정원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하고, 전남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은 해외도시에 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는 광주-전남-경남-부산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전체의 국제행사"라며 "광주-목포-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이 개통되면 부산엑스포 효과가 남부권 전체에 미칠 것이므로 2028년 적기에 준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박람회가 개최되면 남해안이 세계적 관광지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설립하거나, 대통령 직속 남해안 종합개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가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시 조성에 나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3차원 물체를 만들고 모의시뮬을 통해 다양한 요인을 검증하는 기술이다. 광주시는 열섬, 미세먼지, 침수 등 도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정에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설계,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도시 비전·전략·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시민 체감형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도시 조성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민·관·산·학 전문가협의체와 협력해 8월까지 실행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양병욱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과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절찬 판매중

이방인

이 기원 소하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